

hdhstudy.com/1967/19-07-to-19-08-%ec%a7%80%eb%82%9c%eb%82%a0%ec%9d%84-%eb%b0%98%ec%84%b1%ed%95%9d

19-07
 지난날을 반성하고 더욱 정진하자
 [기 도]

우리 모두가 뜻을 위해 나가기로 결의한 것은 사실이다. 우리는 민족과 세계를 복귀하겠다고 맹세했다. 그리고 우리

는 그 결의에 따라 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줄 책임이 있다.

우리가 결의한 이 길을 지금까지는 민족을 중심으로 걸어왔다. 그러나 세계를 넘어 천주까지 나아가야 할 우리 개인이요, 가정이다. 당대에 못 이루면 후손에게 유언을 하여서라도 뜻을 이루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혹 살다가 일찍 죽게 되더라도 살아 있을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뜻 앞에 감사해야 한다. 뜻을 다 못 이루고 가는 데 대하여 선생님께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떠나가야 한다.

우리는 잠시라도 마음 놓을 수 없다. 언제나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하나의 무기와 방패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7년노정이 끝나면 이민족이 해야 할 책임이 다가온다. 이제 여러분에게 더욱 큰 책임과 사명을 분부할 때가 왔다. 과거를 뒤우치고 앞으로 해야 할 새로운 다짐을 하는 각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과 선생님만이 아는 사실들을 생각할 때, 다시 청산해야 할 것이 있음을 느낀다.

뜻을 출발할 때의 나와 오늘의 내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를 비교하여 반성하고 출발시의 결의를 찾아 더욱 충성할 것을 결의해야 한다. 출발시의 자신보다 모든 점에서 앞서는 자신이 되어야 한다. 또 출발시보다 더욱 간절한 심정을 가져야 한다.

선생님도 뜻을 출발할 때와 21년노정이 끝나가는 오늘을 비교하면서 반성하고 청산해야 할 심각한 자리에 있다.

출발 당시보다 더 심정적으로 간절해야 하고, 출발 당시보다 더 활동적이어야 한다.

이제 또 제 2차 7년노정을 걸어야 한다. 36가정, 72가정 124가정, 이중에서도 36가정의 7년노정은 개인이 가는 것보다 더욱 중요하다.

우리 자신이 걸어온 7년노정이 심정을 중심으로 한 것이었나 하는 것을 반성해야 한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수 있고, 지난 날의 환경이 증거할 수 있는 본(本)이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으면 이제부터라도 그러한 본이 되겠다는 새로운 각오를 해야 한다.

오늘 내 자체가 역사적인 결실을 어떻게 맺느냐가 문제이다. 개인은 선생님을 중심으로 종적으로 연결되고, 식구들과는 횡적으로 연결되어서 같이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선생님과 심정, 생활, 행동을 같이하지 못해도 방향과 마음만이라도 같이해야 한다.

지금까지 지상에서 부름받은 사람은 지상에서 싸웠다, 지상에서 싸운 것은 모든 것을 탕감하기 위함으로 이 기간 내의 기쁨과 승리는 자기의 것이 아니다. 더 큰 기쁨과 승리를 위한 제물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승리하고 나서 더 큰 것을 지향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 통일신도들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니 우리들이 막혀 있는 이 길을 열어야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고난 속에서 민족을 중심으로 삼고 발전적인 싸움을 했다.

선생님의 생활 속에서 눈물어린 것을 체휼하려는 생활 태도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언제나 부모님과 한 길을 간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지금까지 내려온 역사의 한이 이 민족을 중심으로 풀려야 한다. 그 모든 한이 나와 내 가정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야 하고, 해원성사되어야 한다는 심정적 기준이 확실해야 한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중된 책임은 지금까지의 슬픈 역사를 거두고 기쁨의 역사노정을 우리 시대에 얼마만큼 세우느냐 하는 것이다.

개인복귀, 가정복귀도 외적인 단계와 내적인 단계가 있다.

‘네가 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다’하는 말을 남기지 않는 자신이 되어야 한다.

나는 지금도 생각하면 이가 갈리는 일이 많다. 선생님과 뜻을 같이하겠다고 맹세했던 사람이 배반한 것, 탕감복귀노정이 21년으로 연장된 것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의 원인된 반대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지금도 생각하는 문제들이다.

그들이 저지른 죄과가 종족적인 것이지. 국가적이고 세계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앞으로 21년을 넘지 못한다. 우리는 그들도 복귀해야 한다. 원수를 갚아야 할 입장에서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타락

한 인간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타락하지 않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 이상으로 사랑하셨다.

7년노정이 지나면 그 수고는 승리의 결과로 남아질 것이다. 36가정은 야곱까지의 조상들 입장이다. 조상들이 책임 못 하면 후손이 해야 한다. 이제 7년노정이 끝나면 축복가정을 재정비해야 한다.

도저히 수습할 수 없는 사람은 교체해야 한다.

축복을 받으면 그 입장이 달라지고 인연이 달라질 뿐이다. 그 자체에 다른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다. 축복가정은 전체를 대신한 입장이다. 축복은 미래세계에 대한 약속이다. 축복가정은 하나님이 계시는 가정이 되어 만민에게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입장에 서야 한다.

축복가정은 후손들이 추앙할 수 있는 원천이 되어야 한다. 후손들에게 아버지의 심정과 아버지를 사모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남겨주어야 한다.

앞으로 남은 3개월 동안 지나간 7년을 반성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기뻐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

© 2013 - 2014 hdhstudy.com | [Contact Us](#)

- [RSS](#)